아무도 모른다

쫌	 500
되는대로	むやみに、いいかげんに
환하다	明るい、透けて見える
짓다	つくる
꺼지다	消える
기대다	もたれる、寄りかかる
담다	入れる、盛る、含む
술자리	酒席
나누다	分ける、分かちあう
시절	季節、時節
흐릿하다	ぼんやりしている
주문	呪文
외우다	暗記する、唱える
허물을 벗다	脱皮をする
희망	希望、望み